

정치자금 안 낼 자유 없나요?

광주시내 일부 구청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액 정치자금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걷고 있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광주시내 A구청은 최근 한달동안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조만간 광주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구청은 지난해 73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었다.

A구청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기탁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기탁은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

광주 일부 구청, 공무원들에 강요 지자체간 경쟁에 추가 모금하기도

의 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탁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구청은 각 부서별로 정치자금 기탁 협조요청을 한 뒤, 개인 급여통장에서 정치자금 기탁 명목으로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모금했다. 이 구청은 1차모금 결과 기탁금액수가 목표치에 못미치자 추가로 모금을 하기도 했다.

광주시내 또 다른 구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급여에서 정치자금

원천징수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계획을 철회 하기도 했다.

A구청의 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걷는다고 하지만 부서별로 기탁금을 걷는 데다 액수가 적다며 추가로 기탁금을 징수하는데 내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도 환급해준다고 하니 손해를 입은 없다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해야 정치자금도 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중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교도소 재소자 자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50대 재소자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재소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25분께 수감중이던 전모(54)씨가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내년 10월 출소 예정이었다.

한편, 최근 6년간 광주교도소에서는 전세를 포함해 4명이 자살했으며, 170건의 폭행사고 등 모두 212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해 전국 47개 교정시설 가운데 서울(241건), 대구(221건), 안양(213건)에 이어 4번째로 가장 많은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 "정보 공개 대상" 판결

교도관들의 교대·근무시간과 재소자 접견, 작업사항 및 감독자 지시사항 등이 적힌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

상)는 20일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모(39)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교도소는 조씨가 청구한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란에 기재된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자 실패 죄송" 자문사 대표 자살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투자 손실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 부티크(비제도권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호텔 10층 객실에 투숙했던 S에셋 대표 최모(56)씨가 숨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가 묵었던 객실에서 장문의 유서와 최씨가 먹고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제와 양주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작년 8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 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라도 건져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평소 존경하고 아끼는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죽음으로써 빚을 갚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투자 손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00년 대학 동문 10여명을 주축으로 기금을 모아 자선운동협회에 공익 등 록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문사 S에셋을 설립한 뒤 선·후배와 친구 등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뉴스

'부적절 주식투자' 前 광주은행장 수사

검찰이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광주은행 전 행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20일 광주은행 전 행장인 J씨가 2004~2008년 은행장으로서 근무할 당시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부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J씨가 주식투자 등과 관련

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 주변 인물 계좌 등을 조사해 주식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초 J씨와 함께 전직 임원 1명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씨는 임기 도중인 지난 6월 중도하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추위 녹이는 사랑의 김장
등 광주지역 1천750여 가구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한국아쿠르트 호남지점(지점장 김석현)은 20일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아쿠르트 아줌마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아쿠르트 아줌마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는 홀로서는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다단계업체, 주부들 꼬여 16억 사취

광주·전남 300여명 피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내 주겠다고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은 뒤 투자금 일부를 챙긴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광주·전남 거주 50~60대 주부들이었으며, 2개월여동안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물려들어 피해액만 16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20일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S산업 특관사업 본부장 C(53)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C씨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이 회사 대표 A(여·47)씨와 총무실장 D(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두 달여간 "건강식품을 구입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구입액의 40%를 수당으로, 매월 100만~150만원씩 직급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B(여·55·대전시)씨 등 투자자 325명을 모아 16억1천만원의 모은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 4억8천만원 상당을 관리비와 직급 수당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투자자들에게 수당은 물론 실적에 따라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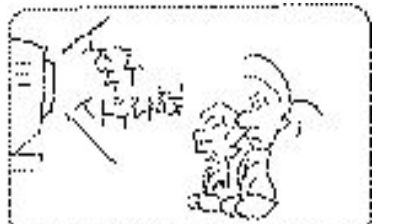
금까지 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자 중 80%는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50~60대 주부들로 주가폭락과 펀드 손실 등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자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이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당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이곳에 투자했으며, 10월 중순께 광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투자한 뒤 입금 등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이 업체를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장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658) 김종두



다중의 건축·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반영
▶ 사무전화 : 02) 3445-0943
▶ 사무공관 : 091) 337-0571

위장 취업 후 중장비 훔쳐 팔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30대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장취업한 후 중장비를 훔쳐 팔다 경찰에 탐미.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S(33)씨는 지난 15일 P(42)씨가 운영하는 보성군 모 중기회사에 중장비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삭기를 빌려달라"며 굴삭기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나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굴삭기 3대 등 6천300만원 상당의 중장비를 훔쳐 팔아치웠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수배를 피해 광주에서 숨어 지내려고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굴삭기를 판 돈을 휴대하기 쉬운 귀금속으로 바꾼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

○경찰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굴삭기를 구매한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방침. /이중형기자 galee@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21금 최진희	25화 박현빈	27복28금 김수희	4복5금 설운도
---------	---------	------------	----------

후박 나이트 OPEN 광주첨단 · 폭스존 옆